2024년 10월 20일(주일) 제17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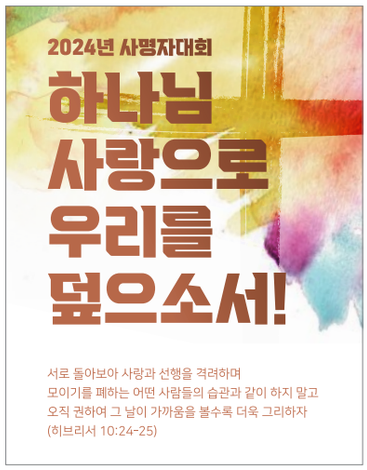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 울 교 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2. 다시 교회로(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2024년 사명자대회 은혜롭게 진행 중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본당

2024년 사명자대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입니다.

2024년 사명자대회는 크게 1.[교육] 말씀 사모 실천하는 사명자 되기 위하여! 2.[전도] 복음전도 실천하는 사명자 되기 위하여! 3.[구제] 예수 사랑 실천하는 사명자 되기 위하여!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말씀 읽고 전도하며 구제에 힘쓰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1월 16일(토) 19시 본당에서 금난새 지휘 오케스트라의 음악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다!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문화교실 24년 가을학기 모집

서울교회는 문화나눔, 말씀에 기반한 기독문화의 형성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린 교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1. 학기운영:클래스당 3개월 단위 10주 코스
2. 24년도 가을학기:10. 19일(토)-12. 22 (주일), 10주
3. 운영비:각 학기당 90,000원
   (10시간 기준, 색소폰 반은 자체 운영)
4. [redacted]는 신설강좌입니다.
5. 클래스 특성에 따라 개강/종료일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서울교회 교회학교 학생 수강 시 수강료의 50%를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7. 문의 및 신청:남재은 집사, 교회사무국
8. 구글신청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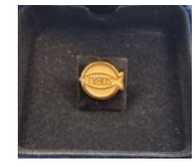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기초반)	주일	10:15-	10주	B101	장윤식 집사
	클래식기타(중급반)		12:40-			
	통기타		12:30-		505	박민서 집사
	베이스기타	토	11:00-		505	김상윤 선생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10주	B101	정인주 단장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피아노	토	9:30-	10주	502	양경실 집사
성악	즐거운 성악교실	토	11:00-	10주	503	신모란 집사
미술	비단부채에 피는 꽃	목	15:00-	5주	704	유은경 집사
건강	매트 필라테스	토	13:00-	10주	702	박재현 선생
댄스	조이 워십(한국무용)	월	13:30-	10주	702	조경숙 권사

* 건강강좌 매트 필라테스는 10월 26일(토)에 시작합니다.
* 미술강좌 비단부채에 피는 꽃은 10월 31일(목)에 시작합니다.

에스더전도회 강남노회에서 모범전도회로 선정

에스더전도회(회장 : 박민숙 권사)는 전도위원회로부터 받은 금 반돈의 뱃지를 지난 10월 16일(수) 10월 월례회에서 '2024 사랑 나눔 장터'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뱃지는 강남노회가 서울교회 전도위원회를 모범전도회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상품으로 받은 것입니다. 회원들의 봉사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4 성경암송대회

예선 : 11월 9일(토)
본선 : 11월 10일(주일)

2024 성경암송은 11월 9일(토)-10일(주일) 일정으로 말씀은 잠언 17-24장입니다.

11월 9일(토)에는 예선을, 11월 10일(주일)에 교회학교 별로 본선을 진행하며 전년과 동일하게 교육 1국 미취학 아동 부서는 전장이 아닌 일부만 암송합니다. 교육국 본선은 각 부서별로 진행하시고 시상 또한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1991년 11월 24일 창간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copyrights ⓒ seoulchurch, all right reserved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tel :(02)558-1106 fax : (02)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실천되는 신앙(2)

약 2:14-26

손달익 위임목사

신앙은 실천이 수반되어야 그 진정성이 증명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변화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도 사랑도 헌신도 모두 실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면서 신앙의 실천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오순절 성령 체험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식어지면서 유대인 특유의 형식주의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1. 구원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야고보 사도는 14절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는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강한 문제 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일관된 가르침과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오직 믿음'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완전성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구원론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실천을 강도하는 야고보의 가르침이 바울의 논리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오직 믿음의 논리는 불신자들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유대교의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율법주의에 대하여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점을 강조한 논리입니다. 이에 반해 야고보의 주장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신앙교육적 교훈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겉모습만 신앙인일 뿐 실재로는 믿음이 없을 때 그런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언제나 실천과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 23:15-23) 신앙생활을 연기하듯 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위선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연기하듯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남을 속이지만 다음에는 자신도 기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고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하나 그 속에는 온갖 불법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은 진실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지식이 삶으로 실천되고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해야 우리 신앙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기독교 지성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주류 지성이 되는 역사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은 지성과 조화를 이루어야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2. 지식의 실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은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신앙을 반석 위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빌 3:8)고 하며 거룩한 지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식인의 위선과 변절을 볼 때 매우 실망하고 분개하게 됩니다. 지식이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불의에 가담할 때 역사는 혼돈에 빠지고 세상은 부패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 거룩한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른 인식이 없이는 바른 신앙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지식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지식이 삶으로 실천되고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해야 우리 신앙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기독교 지성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주류 지성이 되는 역사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은 지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3. 실천의 능력

믿음의 지식을 실천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적잖게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롬 7:20)라고 토로한 것처럼 매일 악의 도구가 되어버린 자신에 대하여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실패의 타성에 젖어 아예 거룩한 실천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정한 타협의 틀 안에 안주하려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패배주의적 자세는 우리 영혼을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의 두 가지 충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는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영혼이 내 몸을 떠나면 우리는 그를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천이 없는 신앙은 신앙으로서의 가치와 능력이 상실된 죽은 것이 됩니다.(26절) 또 한 가지는 순종과 실천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의지하는 철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적 삶이 훌륭한 분들을 볼 때마다 '성품이 좋아서, 경험이 풍부해서 또는 의지가 견고해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영향이 클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결정적 변수는 아닙니다.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신을 발견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욥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약 5:11)고 말하면서 욥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선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우리는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고 잠시 기도를 멈추면 무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약 4:7-8)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게 사는 능력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순종과 실천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회 야외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의 강한 사랑의 향기를 발하는 스데반회가 되기를...

김웅기 안수집사
(스데반회 부회장)

10월 3일(목) 새벽 일찍 스데반 야외예배 장소인 곤지암 화담숲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기후변동으로 여름 폭염을 견디며 지내온지라 갑자기 서늘해진 날씨의 새벽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을 하늘과 숲 가운데 펼쳐진 자연속에서 스데반 회원들과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화담숲을 걸으며 자연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코스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온 가족들과 자연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자연과 조화롭게 사진을 찍고 추억을 한폭의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리조트로 이동하여 스키하우스 2층 카페테리아 식당에서 팀별로 점심식사를 자유로운 메뉴로 선택하여 여러 종류 주문하고 대기시간은 길었지만 나름대로 맛있는 점심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당일 짧은 시간이

었지만 소중하게 간직되는 스데반 교제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제의 시간을 통해 서로간 기쁨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추계 야외예배를 준비하여 주신 스데반 회장님 그리고 임역원들이 처음에는 가을 소풍 초대장으로 홍보 당시 이렇게 많은 참석을 기대하지 못하고 포스터 인쇄등에 의존하였으나 게시판, 엘베, 복도 등에 부착 게시하고 휴대용 마이크와 스피커 등 만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입장권 100여 장을 예매할 당시는 참석인원과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전도의 불씨가 뜨겁게 온 교회로 번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부탁하신 말씀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이는 기도하고 교제하며 모여 예배드리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자연과 함께한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여 주신 모든 회원에게 감사드리고 야외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을 향기와 예수님의 강한 사랑의 향기를 발하여 서울교회를 빛내기를 기도하면서 추억의 스데반회를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보고- 카자흐스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삶

1. 장년부 수련회

청소년수련회를 마치고 7월 16(화)-17일(수) 1박 2일 장년수련회를 찰달라에 있는 수련회 장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장년부수련회도 주제는 동일하게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강사는 카작인 아미나 자매와 아만 형제였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1박 2일 수련회 후 미라 집사 가정에서 모여 궁금한 신앙의 문제들을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수련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전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였습니다.

2. 지방에 있는 성도들 심방

자바글르(우리 도시에서 약 100 킬로 떨어진 마을임)에 있는 칼리마 가정과 바크트 자매의 가정을 방문하여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이 잠들지 않고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격려하였습니다.

3. 고아 사역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수리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고아 사역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이 고아들을 위임받아서 키울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고아를 입양하여 키우는 귀한 현지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카작인 아만부부가 개인적으로 고아를 입양하여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본인들이 낳은 두 명의 아이들과 한 명의 고아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입양한 또 한 명은 이미 장성하여 결혼하였고 다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 가족은 이 도시에 집이 없어 월세를 살고 있었으나 주택을 구입(32,000 불)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부부가 우리와 같이 협력하여 향후 고아들을 더 입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키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 도 제 목

1.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무슬림 땅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2. 타라즈 미르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그들이 강한 주님의 제자들과 군대들로 세워지도록

3. 수련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은 청소년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4. 고아들을 입양하여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고아원 사역이 더 확장되도록 고아 사역을 위한 주택 수리를 위해

5. 강혜정 선교사는 연 2회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검진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금년 9월에도 방광내시경수술을 하고 치료받았습니다.

강혜정 선교사의 온전한 치료를 위해

위 기도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은준 • 강혜정 선교사 올림

2024 사랑 나눔 장터 스케치

26강 : 사도신경_죄사함, 부활, 영생(2)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 가운데 하나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전제들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 그 증인들이 전한 복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제시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전제들 위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직한 신앙이 참으로 부활신앙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부활의 소망이 없이 구원의 소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적이 없어서 예수님과의 첫 대면에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는 인사를 해야할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부활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란,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소망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소망과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57문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57문답은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구원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불멸과 몸의 부활을 통합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대로 그리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구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혼불멸은 믿지만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영혼만을 중요시하고 몸을 중요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57문답의 첫 번째 문장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은 전통적으로 구원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구원은 몸이 죽은 후에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올려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구원 = 죽어서 천국가는 것'이라는 공식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몸을 위한 자리, 다른 하나는 부활신앙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영혼불멸과 몸의 부활을 통합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제하는 것은 분리인데, 여기서는 죽음으로 인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몸은 생명이 끝나 죽은 상태가 되면, 영혼은 그리스도 곧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성자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게 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 전통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 다시 통합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57문답의 2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몸과 영혼의 통합을 여기서는 "다시 결합되어"로 표현하는데, 다시 결합될 때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위로를 얻고 있는지, 몸의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과 부활신앙 없이도 영혼의 구원과 십자가 신앙만으로 충분히 위로를 받는다고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십자가와 부활이 몸과 영혼이 통합된 전인격적인 구원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몸과 부활을 포함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을 위해서 구제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58문 :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에 대한 설명은 "현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58문답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제57문에서 언급한 "몸"과 연결하여 중요한 내용 하나만을 언급하면 "이미 지금"입니다. "이미 지금"은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곧 "현재의 생명"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영원한 즐거움은 현재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계속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위로를 58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영원한 즐거움은 나중에 누리게 될 완전한 복락과는 다르지만, 완전한 복락은 더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정 리

정말로, "구원 = 죽어서 천국가는 것" 이라는 공식을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믿고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죽는 편이 논리적으로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 죽어서 천국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납득할만하게 설명은 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참(true)"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에 이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나 혼자 누리고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논리로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인들에게 이런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막대한 부과 권력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보물을 쌓으라고, 그 방법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고 또 면죄부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몸과 영혼을 전인격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몸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천국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구원은 좁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구원은 몸과 부활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은 이미 지금 현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포함합니다.

식사 제공

-1교구
진찬옥 성도 • 유미영 권사 • 진영호 성도 • 진영민 성도 가정
(하나님 은혜에 감사 드리며)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헌 구민우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예배위원회 섬김위원 모집

주일 1부, 2부, 3부, 찬양예배 및 수요 1부, 2부에서 섬겨주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을 모집합니다. 섬김을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교회 사무국에 비치된 "섬김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성경읽기표 수거

매주 전교인성경읽기를 하시는 성도들은 순례자 6면에 게재하는 성경읽기표를 작성하여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 사명자대회본부는 참여한 성도들과 우수다락방에게 시상할 예정입니다

70인전도대 10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9. 29	자원자	스데반회	10. 2	도르가, 루디아, 뵈뵈
10. 6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10. 9	한글날
10. 13	자원자	바울, 엘리야	10. 16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10. 20	자원자	모세	10. 23	리브가
10. 27	자원자	이삭	10. 30	권사회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경건과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2024 서울교회 사랑 나눔 장터에서 한마음 되어 드린 헌신과 정성으로 하나님 사랑, 서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서울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이 성경의 가치와 정신 위에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10월21일	월	눅 12-13
10월22일	화	눅 14-16
10월23일	수	눅 17-18
10월24일	목	눅 19-20
10월25일	금	눅 21-22
10월26일	토	눅 23-24
10월27일	주일	요 1-2

맥체인 성경통독			
왕하2	살후2	단6	시112,113
왕하3	살후3	단7	시114,115
왕하4	딤전1	단8	시116
왕하5	딤전2	단9	시117,118
왕하6	딤전3	단10	시119:1-24
왕하7	딤전4	단11	시119:25-48
왕하8	딤전5	단12	시119:49-72

사명자대회 기간 중 성경을 읽으신 성도들은 절취선 따라 잘라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교육목사
박미라 손주찬

◇ 준전임전도사
전진석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조하영

◇ 협동목사
양정호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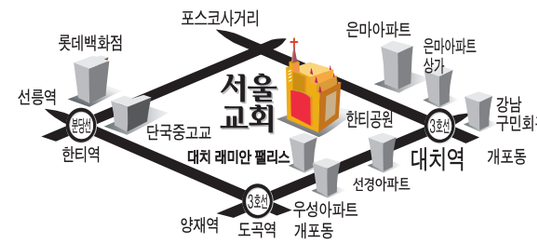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홈페이지QR코드

■ 유튜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